

도시를 품어 주고,
생명을 키워 내는

광교호수공원



2014 경관대상

최월만
신화컨설팅 대표이사





광교호수공원 조감도

한국의 저수지

한국의 18,000개가 넘는 저수지는 선사시대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왔던 흔적이다.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저수지는 교외의 유원지가 되었고, 일터와 놀이터가 따로 분리되지 않았던 우리네 삶 속에 저수지는 생산을 위한 관개시설이자 홍수를 제어하는 장치였으며 제

방의 숲은 넉넉한 쉼터이자 공동체의 장이었다. 공원이라는 말이 없던 시절부터 지역마다 고유한 이름의 '방죽'으로 불린 저수지는 고장의 문화와 경관을 반영하며 현대적 의미의 공원을 넘어선다. 또한 교외 유원지가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고픈 욕구를 채우고 고단함을 달래 주었다. 그렇게 저수지는 늘 우리를 끌어 안고 있었다.



광교신도시의 자연·문화적 거점, 광교호수공원

새롭고 매끈하게 지어진 도시가 논리적, 이성적, 남성적이라면, 대자연
 을 통해 해방감을 맛보는 이곳은 도시를 품어 주고 생명을 키워 내는
 엄마의 품이다. 도시를 받쳐온 문화적 기반이 기술적, 물리적 기반보
 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시 규모를 감당하는 넉넉한 자연성을 담보하

며, 이 자연은 기억, 생명, 감성, 창조의 '성(性)'을 가진 도시자연이
 자 문화적 기반으로 삶에 뿌리내리는 '광교신도시'를 완성하는 부드러
 운 힘이 될 것이다.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광교호수공원은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일대(2,025,053.6㎡)가 2004년 광교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논의되었다. 이후 광교신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거점이 될 수 있는 호수공원 조성을 목표로 2008년 국제설계 공모를 개최하였다. 국내 조경설계 공모로는 최초로 RFQ(Request for Qualification: 참가의향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8개 업체가* 지명초청되어 경쟁하였다. 신화컨설팅의 'Urban Soft Power'가 당선되었으며, 당선작 선정 이후 약 5년 동안의 실시설계 및 공사기간을 거쳐 마침내 완공되었다.

생산적인 인프라, 공동체의 역할과 공원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저수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도시 안에서도 그대로다. 우리는 공원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의미나 형태가 아니라 저수지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처로 접근했다.

첫 번째 대처. 저수지의 주변의 토속적 풍토 경관을 지키고 구체적인 감각을 느끼며 체험한다.

두 번째 대처. 땅의 기억을 모티브로 하여 새로운 영역 어번 레비(Urban Levee)와 둠bung(Dumbung)을 제안한다.

Design Logic : 어번 레비와 6개 둠bung

광교호수공원은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두 곳의 저수지 일대를 말하는데 사람들의 이동통로이자 휴식, 모임의 장소였던 원천저수지의 기존 제방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제방 '어번 레비'와 땅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 부터 새롭게 창조된 장소인 '6개의 둠bung'으로 조성하였다.

6개 둠bung은 신비한 물너미(Secret of the Water Cylinder), 다목적체험장(Multipurpose Lawn), 행복한 들(Field of Joy(Korean

*

지명 초청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주)가원+(주)동심원+(주)삼우건축,
(주)신화컨설팅, 조경설계 서안(주), Field
Operations+(주)그룹한 어소시에이트,
발모리 어소시에이즈(Balmori Associates),
그로스맥스(GROSS,MAX), 스텐알렌
아키텍트(Stan Alen Architect),
WRT(Wallace Roberts & Todd, LLC)



생산적인 인프라, 공동체의 역할과 공원의 기능까지 포함하는 저수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도시 안에서도 그대로다. 우리는 공원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의미나 형태가 아니라 저수지를 둘러싼 변화에 대한 대처로 접근했다.

원천저수지 어번 레비 전경



Picnic)), 조용한 물 숲, 향긋한 꽃 섬(Silent Water Forest and Flower Island), 먼 섬숲(Remote Island Forest), 재미난 밭(The Fun Field) 등으로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곳곳에 조성되어 도시의 다이내믹한 삶으로 작동하는 호수공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원천저수지는 수원 및 수도권 남부지역 시민들의 오랜 기억의 장소이자 대표적인 휴식처였으며, 신대저수지는 주로 낚시터로 이용되며 농업수로 쓰였던 곳이다. 도시의 확장으로 인해 교외의 저수지가 도시 중심에 서게 된 점을 주목하며, 예전 농업저수지의 기능적 역할과 문화적 의미로부터 도시자연이자 도시의 다이내믹한 삶으로 작동하는 호수공원의 역할을 찾고 땅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문화적 기억을 존중함으로써 광고신도시의 창조적이며 강력한 문화적 기반이 되는 호수공원을 만들고자 했다.



어번레비 데크길

마당극장



원천호수에 3개의 테라스로 이루어진 어반 레비(Urban Levee)는 광교신도시 도시민의 일상과 여가를 수용하고 도시와 적극적으로 만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는다. 기존 저수지의 호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떠 있는 구조로 조성된 44레벨의 레비는 가장 가까이에서 물을 바라보고 즐길 수 있다. 47.5 레벨의 레비는 10m 폭의 넓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가 지나가는 중심가로로 바닥분수, 플라워가든, 거울 못, 마당극장 등 이벤트가 가득한 산책로이며 수변공원이 되도록 조성하였다. 인접도로와 맞닿은 가장 높은 레비는 주변 곳곳에서 자연스레 호수공원으로의 진입을 유도한다. 또한 레벨의 차이는 나지만 경사도를 고려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의 수월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었다. 특히 600명 이상 수용가능한 마당극장은 어반 레비와 연계하여 간결한 재료 사용과 미려한 아치형 곡선 지붕을 중첩시켜 강한 조형미를 강조하였다. 이와 연계된 진입광장은 도시와 공원을 연결하고 도로와

수변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레벨차를 이용하는 다양한 수공간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였다.

6개의 공간에 뿌려진 동봉들은 고유한 문화적 기억과 연결되는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그램과 경관을 담는다. 이곳에 담긴 프로그램은 계절의 변화와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반응하고 장소마다 고유한 가치와 문화적 기억을 바탕으로 한다.

원천저수지 여수로에서 영감을 얻어 계획한 '신비한 물너미(The Secret of the Water Cylinder)'는 지름 60m 규모로 원천호수 수면보다 3m 아래에 위치하여 벽천을 통해 호수의 물이 오버플로우되는 듯한 극적인 체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바닥면에서 솟아오르는 안개분수와 바닥분수는 물과 접하는 다양한 놀이공간이 되기도 한다.

‘신비한 물너미’ 전경





‘행복한 들’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



하늘 전망대 전경



30년 전 유원지 나들이의 기억을 살리는 ‘다목적체험장(Multipurpose Lawn)’은 오토캠핑 및 캐러반 캠핑이 가능한 총 33면의 가족캠핑장으로 조성하였다.

한국인의 천변 놀이터를 재현하는 ‘행복한 들(Field of Joy)’은 숲속 쉼터 및 놀이시설, 바닥분수 등이 있는 가족 단위의 피크닉 공간이 된다.

광교신도시의 녹지축과 연계되는 새로운 관문이며 기존의 밭에서 문화에 예술을 일구어내는 ‘재미난 밭(The Fun Field)’은 너른 원형 잔디 밭을 중심으로 인공암벽장, 자연학습원 등이 조성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인공암벽장에는 수직구조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반 공

아치형으로 조성된
정다운 다리는 물 위를
걸는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리 위의 정자에서
바라보는 물 위에 떠 있는
조명은 고요한 호수의
운치를 한 층 더해 준다.



원천저수지의 자연습지

원이용자들도 내부계단을 따라 오르면 주변조망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자연형 공원에 가까운 신대저수지는 기존의 수림이나 지형을 보존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신대호수 제방 근처에 조성된 하늘 전망대는 신대호수 및 행복한 들을 조망할 수 있는 호수공원에서 가장 시야가 트인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양호한 기존 수림과 지형을 보존하고 이에 순응하는 공원을 만들고자 했던 신대호수 주변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고, 목재큐브의 프레임을 통해 바라보는 신대호수는 또 다른 경관의 연출이 된다. 신대호수의 오목한 습지에 연꽃을 띄우고 아늑한 숲을 조성한 '조용

한물 숲, 향긋한 꽃 섬(Silent Water Forest and Flower Island)'에는 원형데크 위를 걸으며 안개분수와 함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아치형으로 조성된 정다운 다리는 물 위를 걷는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리위의 정자에서 바라볼 때 물 위에 떠 있는 조명은 고요한 호수의 운치를 한층 더해 준다.

원천호수로부터 가장 먼 곳에 만든 '먼 섬숲(Remote Island Forest)'은 신대저수지와 가산천이 만나는 유입부에 있다. 주변 습지와 연계하여 만든 버드나무가 심겨진 섬은 물새들의 서식처를 만들고 한강으로부터 이어지는 광역 자전거도로와 만나며, 호수공원의 또 다른 관문이 된다.



어반 레비의 야간경관



정다운 다리의 야간경관



조명은 공원이용객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단을 향해 빛을 노출시키고 동선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빛이 닿지 않도록 하여 ‘빛 공해’를 고려한 계획을 했다.



호수공원의 야간경관은 다채로운 빛이 호수에 반사되어 낮과는 다른 모습을 연출한다. 원천호수의 주보행로인 어번 레비에는 주간경관을 고려하여 조명 풀을 배제하고 조명을 난간 손잡이 하단에 설치했다. 조명은 공원이용객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단을 향해 빛을 노출시키고 동선과 관계없는 공간에는 빛이 닿지 않도록 하여 ‘빛 공해’를 고려한 계획을 했다.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를 아우르는 호수공원은 원천호수와 신대호수로 거듭난다. 원천호수는 도시적이고 다이내믹한 공간이라면, 신대호수는 원래의 자연을 최대한 살려 자연과 함께하는 호수공원이다. 광교신도시 호수공원이 도시와 도시민을 품어주는 넉넉한 자연을 담보하며 “Urban Soft Power”로서 도시민의 일상과 여가를 수용하고 광교신도시의 새로운 도전을 반영하기를 희망한다.